



NH농협은행, 전국 아마추어 배드민턴 대회 성료
NH농협은행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수원 만석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에서 제2회 NH농협은행 전국 아마추어 배드민턴 랭킹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건강한 문화체육생활 조성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50여개 시·군에서 약 10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NH농협은행 이대훈 행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7일 수원 만석공원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에서 20·30대 여자복식 우승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NH농협은행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부모님 만남' 행사
동아제약은 지난 7일 제22회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행진 10일째를 맞아 강원도 삼척시 일대에서 '부모님과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부모님과 만남 행사는 참가 대원의 가족을 초청해 초반의 어려움을 이겨낸 대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중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 엄대식 동아에스티 회장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도 함께 걸으며 참가 대원들을 응원했다. /동아제약



CJ프레시웨이, 2020 급식 트렌드 세미나 개최
CJ프레시웨이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관 경로에서 급식 서비스 증진에 나섰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5일 서울 본사에서 전국의 복지관 영양사 약 80명을 대상으로 '2020 급식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CJ프레시웨이는 실버와 키즈 등 세대별로 선호하는 최신 식단 트렌드와 함께 관련 위생법령 개정사항, 복지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현장 위생안전 Tip 등 다양한 교육으로 진행했다. /CJ프레시웨이



SPC그룹, 여름방학 맞아 나눔활동 강화
SPC그룹은 여름방학을 맞아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SPC그룹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결식우려아동들을 위해 해피포인트를 지원한다. 김순태 가평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왼쪽부터), 김범호 SPC그룹 대외협력실 부사장, 여인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지역본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티웨이항공, 15일까지 신입·경력 100명 채용

티웨이항공이 오는 15일까지 채용사이트를 통해 100여명의 신입·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8일 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운항관리, 영업, IT, 노무, 회계 등 경력직 및 객실승무원(신입 인턴), 운

항관리, 항공정비, 운송, 자금, IT, 회계, 수입관리, 운항기술 등이다. 이번 채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티웨이항공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마세요



이상현의 칼럼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버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지? 할 거다.

요즘 식자재마트나 할인점에 가보면 많은 과일이나 채소들이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잔뜩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신기하게도 마치 공산품처럼 비슷한 크기의 작물들이 소비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농산물이 똑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으로 자랄 순 없을 것이다. 흠집도 있고, 다른 크기로 성장한 것도 있듯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2014년 프랑스의 유통회사 'INTER MARCHÉ'는 '못생긴 당근도 수프로 만들기엔 문제없다'라는 포스터로 고객의 관점을 이동시킴으로 큰 반응은 일었다.

그이후 못생긴 채소와 과일 열풍은 유럽과 미국 호주 등 전 세계로 확산했다.

월마트(WALMART)와 홀푸드(W

HOLE FOODS), 크로거(KROGER) 등 많은 유통업체들까지 못생긴 채소(UGLY VEGETABLE) 마케팅에 도전, 일반적 채소의 30~50% 가격에 판매하는 새로운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다.

그 중 임퍼펙트 프로듀스(Imperfect Produce)라는 회사는 버려지는 못생긴 농작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배달해주는 로컬푸드 사업으로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창업에서도 적용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창업은 소위 잘나가는 브랜드나 본사에 대한 창업자들의 쏠림 현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소위 오너 리스크나 본사의 갑질 등으로 창업자는 항상 약자라는 인식의 확산에 오히려 성공을 위해 브랜드선택 기준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부족한듯 하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자신의 브랜드만의 정확한 전략과 성공을 위한 노력과 실천하는 브랜드들을 최근 창업자들은 선호한다.

이러한 상생과 협업의 브랜드를 강소브랜드라 통칭한다. 강소브랜드란 유명한 본사나 대형브랜드는 아니지만

가맹점과의 상생과 협업을 통해 가맹점의 만족도가 수익성을 포함, 우수한 브랜드를 일컫는다.

대표적 강소 브랜드로는 가마로강정, 알파문구, 김가네김밥, 야미에그, 이디야커피, 코바코돈가스, 반딧불이, 집버리 등 브랜드들이다.

과일과 채소를 통한 못생긴 마케팅 확산은 상품 본질에 대한 고객의 소비 성향 변화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영양소와 맛 그리고 가격적 경쟁력을 통한 구매 행위를 실질적 이익성을 증가하는 가성비 극대화를 위한 판매마케팅이 현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결과라 하겠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시설과 인테리어에 대한 거품을 빼고 현실적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많은 브랜드에서 실천 실효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성이나 포장, 가격을 절감하는 다운사이징 전략이 그 대표적 마케팅이다. 그러한 실천을 통한 브랜드들이 강소브랜드들이고 그 강소 브랜드들이 최근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컨설팅학 박사)

우리금융, 휴가철 혈액수급 안정화 앞장

내달 30일까지 헌혈 캠페인 전개

우리금융그룹은 여름 휴가철과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우리은행과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006년 헌혈 약정 체결 이후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금융그룹 출범에 맞춰 전 그룹사 임직원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번 캠페인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박필준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주와 은행 본점 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시작으로, 우리금융그룹 전 그룹사 직원들이 가까운 헌혈의 집을 자발적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오른쪽)과 박필준 노조위원장(왼쪽)이 8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직원들과 함께 헌혈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로 방문해 헌혈을 실시하고 헌혈증을 기부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있는 날이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헌혈 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 생명나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이 기부한 헌혈증을 모아 백혈병과 소아암 등 희귀성 난치병과 투병중인 소외계층 환우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인사

◆국회사무처 ◇신규선임 △국회방송국장 임광기 ◇이사관 전보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원모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신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창석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태형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기획혁신담당관 강대금

◆통계청 ◇일반 고위직 공무원 전보 △통계정책국장 강창익 △통계데이터허브국장 김광섭 △사회통계국장 은순현

◆코트라 ◇임명 △감사 노광일

◆신한금융투자 ◇전무대우 △투자금융본부 이재원 △기업금융본부 황계은 ◇본부장 △구조금융본부 이상훈 ◇부사장 △IPO부 신석호 △PI부 이정현 △자금관리부 정규호 △심

사2부 정재훈

◆현대약품 △경영관리본부장 상우 우택상

부음

▲박금순씨 별세, 김효동(경기도일자리재단 홍보마케팅 팀장)·김나리(인천재능대 교수)·김나비씨 모친상, 김은주씨 시모상, 김재필(롯데손해보험 영남영업 부문장)씨 장모상=8일 오전 1시,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 109호실, 발인 10일, 010-3584-0920

▲허천택(전 동국대 부총장)씨 별세, 서영애씨 남편상, 허혜경·허혜정(송실사이버대 교수)·허훈(자영업)·허준(㈜에스에프에이 상무)씨 부친상=8일 오전 3시5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0일 오전 11시30분, 장지 국립 4-19민주묘지, 02-3410-6914

▲박홍수씨 별세, 김주찬(전 논산시 부시장)씨 부인상=7일 오후 8시,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031-219-6654

▲박병순씨 별세, 임익성(미소금융 지점장)·임취선(은혜의정원 실장)·임은경씨 모친상, 방태성(에스푸드(주) 부사장)씨 장모상=8일 오전 5시14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이천 호곡원, 02-3410-6905

▲김태현(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초대 명예교수)씨 별세, 이계업씨 남편상, 김승룡·김승관(한국표준과학연구원 양자기술연구소장)·타미김(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대의원)씨 부친상=8일 오전 3시3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광주 공원묘원, 02-3010-2231